지역 소식통

김제보건소, 지평선 깨친맛값 음식점 영업주 대상 간담회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는 22일 보건소 1층 회의실에서 향토 및 모범·지평선 깨친맛값(깨끗하고 친절하고 맛있고 값이 적정한) 음식점 영업주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지정된 향토음식점(5개)과 모범음식점(39개), 지평선 깨친맛값음식점(6개)은 청결한 위생시설과 좋은 식단 실천 등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앞장서는 김제시의 대표 음식점이다.

이번 간담회는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대하여 바로 알고 제대로 인식하고자 마련한 자리로 위생관리담당이 자체교육을 실시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영농철 중소형 농기계 공급

완주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중소형 농기계를 공급, 농가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22일 완주군은 농촌인구 노령화에 따른 일손부담, 기계화 비율이 낮은 원예작물과 밭작물 농가를 위해 이용도가 높은 중소형 농기계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군이 이번에 공급한 농기계는 총 102대다.앞서 군은 1월에 각 읍·면별로 농기계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선호도가 높은 관리기, 경운기, 건조기, 동력살분무기, 퇴비살포기 등 총 5종을 선정했다.

특히 기계당 50%를 군에서 보조해 농업인들의 부담을 줄였다.

군은 하반기에도 밭농사에서 선호도가 높은 관리기 90여대를 공급할 예정으로 농가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농기계를 매년 지속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완주=이중복 기자

김제시 예산규모 7200억원 초과

지난해 본예산 5015억원보다 무려 45% 증가 규모 사상 최대 예산 확정

김제시가 2017년 5월 31일 김제시의회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6월 21일 김제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7,200억원을 초과한 사상 최대의 예산이 확정되었다.

이는 2008년 3,843억원 이었던 예산이 10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되었고 2016년 본예산 5,015억원 보다 무려 45%(2,251억원) 증가한 규모이다.

특히 눈에 띄는 추경 예산으로는 2017년 벼 수확용 톤백 지원사업으로 순수 시비 6억원을 편성 2016년 쌀값 하락에 따른 직불금 동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 농가의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게 되었으며 65세이상 노인들의 일자리사업을 위해 본예산 36억여원으로 추진하였으나 사업 희망자가 늘어나 3억 5,000여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노인 일자리를 좀 더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보훈단체의 오랜 염원인 보훈회관 건립에 도비 2억원을 포함한 6억원이 편성되어 (구) 교월동사무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7개의 보훈단체가 입주 하게됨은 물론 시민의 안보교육장소로도 활용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평선 산업단지 미분양 토지에 대하여 김제시가 300억원을 투입 77,112평을 매입함으로써 산단 미분양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기업유치시 우수기업을 선택하여 양질의 업체가 입주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이처럼 2016년 대비 막대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주요 세입인 교부세 확보를 위해 이건식 시장의 풍부한 중앙 인적 네트워크와 3선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인 대응의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건식 시장은 10년전 3,843억원의 예산으로 시작된 김제시 재정이 이제는 7,000억원 이상으로 돌입함에 큰 감회를 느끼며 이번에 편성된 예산도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가뭄피해 확산 방지 '총력전'

수목이 고사하지 않도록 관수작업 나서

완주군이 가뭄피해 확산방지와 극복을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22일 완주군은 가뭄대비 상황실을 운영해 농업수리시설 보수 요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수목이 고사하지 않도록 관수작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군은 가뭄피해가 예상됐던 지난 12일부터 발 빠르게 3개 협조부서, 5개 유관기관 합동으로 가뭄대비 상황실을 가동시켰다.

상황실에 접수된 농업수리시설 보수 요청은 2일 이내 보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관정보수 9건, 권양기보수 9건, 들샘 전기 인입 요청 2건이 접수됐으며, 전체 20건 중 19건에 대한 보수를 완료했다. 나머지 1건은 보수를 진행 중이다.

특히 용진읍 금성저수지 복통 누수, 화산면 춘산저수지 권양기 보수 요청에 대해서는 잠수부까지 투입해 보수를 마쳤다.

즉시 보수가 어려웠던 화산면 남동저수지의 권양기 고장 신고에 대해서는 신속보수가 어려워 우선적으로 무동력 급수를 실시해 피해를 막고, 권양기 보수 작업을 진행해 지역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기도 했다.

또한 고온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수목이 고사될 것을 우려해 관수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군은 지난 5월부터 관수대책반을 편성해 급수차량, 산불진화차량 등 관용급수차량과 인력을 투입했으며 가로수와 도시 숲 조성지 등에 심은 3,000여 그루에 대한 관수작업을 실시했다.

또 식재 된지 얼마 되지 않아 뿌리 활착이 미흡하고 수세가 약한 수목에는 물주머니 500여 개를 설치(점적관수)해 지속적인 관수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완주=이중복 기자

완주군, 만경강 생태탐방교육 현장학습 돌입

완주군이 '만경강 생태아카데미'를 통해 주민 생태강사를 양성하고 있다.

22일 완주군은 생태아카데미 참가자 27명과 함께 만경강 봉동천 생태탐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시작해 매주 월요일 진행되고 있는 생태탐방교육은 이번 봉동천을 시작으로 현장학습에 돌입했다.

이날 수강생들은 전정일 전북생태교육센터 강사의 안내를 받아 만경강이 품고 있는 다양한 풀과 꽃, 나무, 곤충들을 관찰하며 생태적 지식과 감수성을 높였다.

오는 26일에는 김진돈 전라북도문화재위원과 동상면 대아리에서 고산향교를 거쳐 봉동읍 둔산리의 만경강 인근 고대유적들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은 만경강 신천습지, 고산천 어류체험, 밤샘 생태로 탐방이 진행된다.

탐방에 참가한 학습자는 "이번 만경강 생태아카데미를 통해 완주의 중심부를 흐르는 만경강의 가치를 더욱 깊이 알게 됐다"며 "각자의 이름을 가진 다양한 수생식물을 대하면서 마음을 힐링할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완주=이중복 기자

지평선학당 수강생 대상, 화재대비 모의 훈련 실시

(재)김제사랑장학재단(이사장 이건식)은 22일 미래 김제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지평선학당에서 수강생을 대상으로 화재대비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평선학당은 매주 주중(월~목요일)에는 관내 150여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로서 여름철 냉방기 사용량 증가로 인한 화재위험에 대비하여 학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비상시 대피 훈련을 진행했다.

이날 모의훈련은 화재발생시 학생들의 신속하고 적절한 화재대피와 함께 소방관서의 화재진압 출동시 원활한 지원과 협조를 통한 화재진압, 인명구조, 수습복구 활동등 재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했다.

방과후 수업전에 실시한 훈련에 참여한 교사와 학생들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실시한 훈련으로 인해 유사사고 발생시 보다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종현 인재양성과장(장학재단 상임이사)은 "우리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지평선학당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의 성적향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진안군, 상반기 퇴임식 개최

진안군은 22일 2017 상반기 퇴임식을 이항로 군수, 박희정 노조위원장, 동료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강당에서 가졌다.

이날 퇴임식을 가진 퇴임자는 맑은물사업소 김홍식, 관광개발사업소 박재인, 농촌지원과 정상서, 재무과 송한주 세입팀장, 조준열 마령면장, 하태식 주민생활지원과장 등 6명이다.

퇴임자들은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후배공무원들에게 남기는 영상메시지가 상영되었고, 후배공무원들이 퇴임자에게 전하는 축하영상메시지가 이어졌다.

또한 새내기 공무원들이 명예롭게 퇴임하는 선배공무원들을 축하하기 위해 정성껏 준비한 축하공연도 펼쳐졌다. /진안=우태만 기자

김제시 모악회, 새만금 내부개발 현장 견학 버스투어 · 현장 브리핑 실시

김제시 기관·단체장 모임인 모악회(회장 이건식)가 22일 40여 명의 회원들과 함께 새만금 내부개발 현장을 둘러보며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 가는 새만금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답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이번 모악회에서 방문한 새만금 내부개발 현장은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동진4·5공구 및 동서2축도로 등 일반인에게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새만금 현장에 대한 버스투어 및 현장 브리핑을 실시하였다.

모악회 6월 월례모임으로 새만금 내부개발 현장견학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시 주요사업의 추진상황을 직접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리더격인 관내 기관·단체장에게 공감대를 형성하여 김제발전의 밑거름을 다지게 하기 위함이다.

기존 회의방식으로 운영해 온 김제시 모악회는 앞으로 연 2회 지역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행정을 실시할 계획으로, 금번 6월에 실시한 새만금 내부개발 현장에 이어 9월에는 제19회 김제지평선축제 행사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모악회 주재인 이건식 김제시장은 "이번 현장견학을 통해 관내 기관?단체장이 직접 나날이 변모해 가는 시 주요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공유와 소통을 통해 김제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고 밝혔다.

김제시 모악회는 김제시정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기관·단체장들이 모여 지역현안과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 상호 협력관계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2006년부터 현재까지 지속 운영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